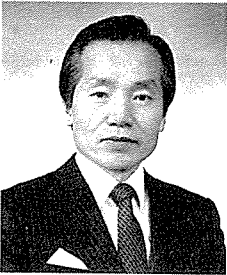


바벨탑환상이 아니기를...



유 경 재
〈안동교회 목사〉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또 인간의 손에 들어간
발전된 과학기술은 오히려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하고
환경을 파괴하여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볼때 과학기술의 발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참으로 놀랍고, 앞으로 더 발전해 가리라 예상이 된다. 이런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수명을 연장해 주었고 미지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은 참으로 놀랍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교만한 인간의 손에 들린 발전된 과학기술은 더욱 무서운 도구로 사용되어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하고 자연을 파괴하여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볼 때, 과학기술의 발전이 마냥 좋은 것이라고만 박수치고 있을 수 없다.

바벨탑 이야기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노아 홍수로 혼이 난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신이 이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므로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고대 설화이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최첨단의 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 같이 느껴진다.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교만을 비판하며 자신을 이 우주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끝 간데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동물적인 정욕을 좇아 끝없이 추구한 쾌락에 대

한 제동이 걸린 오늘의 역사를 미리 예견한 예언자적 통찰의 기록이다.

‘신은 죽었다’

첫째로 이 설화에서 신을 떠나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한 인간의 교만과 그래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무모한 행위들을 보게 된다. 신이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 예술적 능력과 지혜를 준 것은 신이 창조한 세계를 보다 조화있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자신의 존재를 위대하게 나타내고자 하는데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자신의 힘을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신의 영역으로 생각되는 부분에까지 그 손길을 뻗치고 있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인간의 행위는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일이다. 인간이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앉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을 찬양하기 보다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하게 되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것은 예언자적인 통찰로 이런 미래의 세계를 내다본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갖고 있던 것 중 가장 거

룩하고 강한 분이 우리의 칼에 찔려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하늘에서 신을 몰아내고 하늘을 철거시켜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어 이 땅에다 낙원을 건설하려고 한다.

웃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인간의 자만에 대해 아주 역설적으로 꼬집고 있다. 신은 이런 인간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그들이 쌓는 탑을 보려고 강림하였다고 했다. 인간들은 거대하다고 생각하고 쌓아올린 탑인데 신이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인간은 지금 하늘까지 닿겠다고 쌓아올린 탑인데, 신은 그것을 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했다는 것이다. 현미경을 통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어떤 세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올린 탑이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려고 땅에까지 내려와야만 했던 것이다.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에 기가 죽은 포로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는 이렇게 외쳤다. "그에게는 못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 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사야서 40 : 15~17)

광활한 우주를 창조한 신에게는 그 우주 가운데 먼지같은 지구 한 귀퉁이에 아무리 거대한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세포와 같은 것에 불

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신처럼 우주를 만들겠는가? 만들기는 커녕 거기에 가보기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아닌가? 신에게 인간의 과학적 기술이란 정말로 하찮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는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에 의해 이 우주가 보전되며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느낀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모한 불장난으로 저질러진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며,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신의 제동

신은 마침내 내려와 이 모든 일을 보고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므로 인간들을 다 각기 흩어지게 하였다고 하였다. 인간의 왕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원자폭탄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던 아인슈타인은 그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를 보고 그는 다시는 원자탄 쓰기를 거부하고 평화주의자로 돌아섰다. 원자폭탄은 전쟁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제동을 건 신의 개입이라고 하겠다.

암이 무서운 병이지만, 그것은 무엇이나 탐욕스럽게 먹으려는 우리 인간들에게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신의 제동장치가 아닐까?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지만, 이 역

시 인류의 성(性)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는 신의 경고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제동한 것은 신의 인류에 대한 보다 큰 사랑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게 하시려고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어리석은 바벨탑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참 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으며,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우리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므로 혼란했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실 때, 그 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언어가 치료받게 된다.

오늘날 극도로 발달된 인간의 과학 기술문명이 이 세계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뿐이다. 그것을 통해서 신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고 신비한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바벨탑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제동의 역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에 대항하기 위한 바벨탑으로서가 아니라 그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과학기술이 될 때 그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①